

“아버지 영전에 이 영광 바칩니다”

우즈, 브리티시오픈골프 2연패



‘골프황제’가 2개월 전에 영면한 아버지의 영전에 11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바쳤다.

우즈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인근의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파72·7천258야드)에서 열린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크리스 디마르코(미국)의 추격을 2타차로 따돌린 우즈는 이로써 작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2000년 우승을 포함해 브리티시오픈 우승자에 주어지는 ‘클래레지그’를 통산 세차례 품에 안았다.

대회 2연패는 지난 1983년 톰 왓슨(미국)에 이어 23년만에 나온 진기록이며 18언더파 270타는 지난 2000년 우즈 자신이 세운 대회 최다언더파 기록에 단 1타 모자랐다.

또 우즈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 이후 3차례 메이저대회 무승 행진을 마감하면서 통산 11번째 메이저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 대회에 앞서 열린 US오픈에서 메이저대회 첫 컷오프를 당한 수도모 깨끗이 벗어났다.

잭 니클로스가 갖고 있는 메이저대회 최다승 기록(18승)에 7승 차이로 다가선 우즈는 메이저 통산 우승 횟수에서 월터 헤이건과 함께 공동2위로 올라섰다.

특히 아버지 얼 우즈가 지난 5월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뒤 슬픔에 잠겨 있던 우즈에게는 아버지를 떠나 보낸 이후 거머쥔 첫 우승컵이라는 점에서 한결 뜻깊었다.

1995년 스코틀랜드 커누스티링크스코스에서 열린 아마추어대회 때 아버지와 처음 링크스코스를 밟아봤다는 우즈는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대회 기간 내내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특히 오늘은 더 그랬다”면서 슬픔을 딛고 다시 ‘황제’의 위상을 되찾았음을 선포했다.

메이저 대회 통산 11번째 정상

이와 함께 이 대회 전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8승을 올리는 동안 단 2차례 밖에 역전패를 허용하지 않은 우즈는 메이저대회에서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시작한 11차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붉은 셔츠의 공포’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동2위 3점에 1타차라는 불안한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 우즈는 추격자들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사이 5번홀(파5)에서 8m 짜리 이글 퍼트를 집어넣으면서 우승을 향해 출발했다.

10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그린에 올려 간단하게 1타를 줄인 우즈는 12번홀(파4)에서 두번째샷이 그린을 벗어나 1타를 잃어 디마르코에 1타차로 쫓겼지만 14번홀부터 16번홀까지 3개홀 연속 버디 퍼트를 벌여 추격을 따돌렸다.

14번홀(파4)에서는 2.4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치지 않았고 15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그린 왼쪽 단락을 맞고 홀쪽으로 굴러들어오는 행운까지 겹치면서 2m 버디 찬스가 됐다. 이어진 16번홀(파5)은 우즈가 1~3라운드 내내 버디를 뽑아냈던 곳. 페어웨이우드로 티샷을 날린 뒤 아이언으로 두번째에 그린에 볼을 올린 우즈는 가볍게 2퍼트로 1타를 더 줄였다.

앞서 경기를 치르고 있던 디마르코가 17번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덕에 3타차리드를 안고 18번홀(파5)을 맞은 우즈는 2m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춰선 통에 자신이 갖고 있던 최다언더파 기록을 재연하지 못한 것이 ‘옥에 티’였다.

4언더파 68타를 친 디마르코는 함께 16언더파 272타로 생애 세번째 메이저대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우즈에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면서 2002년에 이어 4년만에 클래레지그 탈환을 노렸던 에니 엘스(남아공)은 이날 단 1타 밖에 줄이지 못해 함께 13언더파 275타로 3위에 그쳤다. 가르시아는 11언더파 277타로 공동5위까지 밀려나 3라운드 공동2위 그룹 가운데 가장 처지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아이언 맨’ 우즈?

4일간 파 4홀 티샷에선 안쓰던 2번 아이언 선택

72홀을 치르는 동안 드라이버를 꺼낸 것은 단 한차례.

파5홀은 반드시 버디를 챙기고 어려운 홀은 파가 목표, 버디는 보너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11번째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흔들림없이 전략을 지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즈는 이번 대회 코스에 그리 길지 않지만 티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타수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한동안 참고에 넣어뒀던 2번 아이언을 챙겨 출전했다.

우즈의 2번 아이언샷은 낮은 탄도로 250야드를 날아가는 ‘스팅어샷’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명품샷.

그러나 강력하고 정확한 스윙을 구사해야 제 몫을 해내는 2번 아이언은 합틀이지 않고도 같은 비거리를 내는 5번 우드에 밀려났다. 우즈가 올해 들어 한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2번 아이언을 꺼내든 것은 하나의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300야드 안팎을 때릴 수 있는 드라이버에 비해 50~60야드나 비거리가 짧은 2번 아이언으로 430~450야드짜리 파4홀 공략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즈는 나흘내내 파4홀에서는 고집스럽게 2번 아이언을 고수했고 결국

우승을 이끌어냈다.

최종 라운드에서도 우즈는 파5홀에서는 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3번 우드를 잡았지만 파4홀 10곳에서는 2번 아이언 티샷을 계속했다.

4라운드 내내 페어웨이 안착률 85.7%로 대회 평균 67.3%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그린 적중률(80.6%) 역시 대회 평균 66.6%를 크게 웃돌았다.

우즈가 티샷용으로 2번 아이언을 잡은 데는 롱아이언을 어떤 선수보다 정확하게 쳐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었다.

200야드 안팎의 거리에서 4~5번 아이언으로 볼을 쏘아 올려 홀 옆에 세우는 묘기샷은 우즈의 전매특허.

이번 대회에서도 드라이버로 티샷한 동반 선수보다 50야드나 뒤쪽에서 그린을 공략하면서도 홀에 더 가깝게 붙이는 롱아이언샷을 자주 보였다.

2라운드 때 14번홀(파4·456야드)에서 2번 아이언으로 250야드 날린 티샷을 날린 우즈는 홀까지 204야드나 남아있었지만 4번 아이언을 들고 친 두번째샷을 그대로 홀에 꽂아넣는 이글쇼를 펼치기도 했다.

파4홀에서는 6개의 버디와 이글 1개를 뽑아냈지만 보기도 7개를 쏟아냈다. 한마디로 파4홀은 본전만 챙기는 곳으로 설정한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4일 영국 로열리버풀 링크스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가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석호 8언더 공동 11위



‘톱 10’ 진입 실패 아쉬움 한국선수 역대 최고 성적

‘에비 아빠’ 허석호(33·사진)가 한국 선수의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도전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다.

허석호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인근의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파72·7천25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4라운드 함께 8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마친 허석호는 공동11위에 올라 2004년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세운 한국인 대회 최고 성적인 공동16위를 넘어섰다.

1956년 연덕춘, 박명출 등 2명의 한국 선수가 브리티시오픈 무대를 밟으면서 50년 동안 7명의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아직 ‘톱10’ 입상자가 나오지 않은 아쉬움을 허석호가 어느 정도 달랜 것이다.

허석호는 지난 2003년 1~3라운드에서 선두권을 달려 돌풍을 일으킨데 이어 또 한번 상위권 성적을 내면서 미국 무대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허석호는 1~4번홀에서 차분하게 파를 지켜낸 뒤 5번홀(파5)에서 1.2m버디 찬스를 만들어냈다.

가볍게 1타를 줄인 허석호는 9번홀(파3)에서도 2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10위 이내로 진입했고 10번홀(파5)에서는 그린 밖에서 퍼터로 굴린 네번째샷이 홀에 들어가면서 공동7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그러나 11번홀(파4)과 13번홀(파3)에서 잇따라 파퍼트가 빛나면서 공동15위까지 처져 그대로 무너져나갔다.

하지만 허석호는 16번홀(파5)에서 또 한번 버디 퍼트를 떨구 분위기를 바꿨고 17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18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벙커에 빠뜨리고도 버디를 뽑아내 4라운드 72홀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날 “파5홀에서 승부를 내겠다”던 허석호는 “다짐”대로 4곳의 파5홀에서 모두 버디를 뽑아냈다.

한편 국가대표 출신인 허석호는 골프 선수로는 드물게 3년간 군복무와 무릎 수술 등을 거쳐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인물. 1995년 프로에 데뷔했지만 군 복무를 마친 뒤에야 제대로 프로 선수로 뛴 수 있었다.

허석호는 그러나 1999년 무릎 슬개골 파열이라는 사실상 선수로서의 사형선고를 받았고 대수술을 감행한 뒤 2001년 포카리스웨트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2001년부터 일본에 진출해 올해까지 통산 6승을 올려 한국 선수로서는 일본프로골프투어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나해 12월 석혜영(27)과 결혼해 오는 12월 첫 아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롤린스 B.C.오픈 우승

존 롤린스(미국·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두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롤린스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논의 어튼오티골프장(파72·7천31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B.C.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쳤다.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9타의 롤린스는 볼 메이(미국·270타)를 1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02년 캐나다오픈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거뒀던 롤린스는 4년만에 두번째 우승을 따냈다.

7타를 줄인 마루야마 시게키(일본)가



17언더파 271타로 3위를 차지했다. 브리티시오픈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이 대회는 B급 대회로 언론이나 팬들의 관심 밖에서 치러져왔고 내년부터 대회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롤린스는 대회 마지막 챔피언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